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曹 点 煥

學校 相談室運營에 대한 中學生의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Operation of A Counselling Department
Perceived by Junior High School Students

1995년 8월 일

漢城大學校 行政大學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李 然 玉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曹 点 煥

學 校 相 談 室 運 營 에 대 한 中 學 生 의
意 識 構 造 에 관 한 研 究

A Study on the Operation of A Counselling Department
Perceived by Junior High School Students

위 論 文 을 教 育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1995년 8월 일

漢 城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教 育 行 政 學 科

教 育 行 政 專 攻

李 然 玉

李然玉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 함

1995년 8 월 일

審査 委員長 印

審査 委員 印

審査 委員 印

目 次

I . 緒 論	1
1. 研究의 必要性	1
2. 研究의 目的	2
3. 研究의 方法	2
4. 研究의 制限點	3
II . 理 論 的 背 景	5
1. 學校相談의 意義	5
2. 學校相談室의 機能	9
3. 學校相談室 運營의 要件	11
4. 學校相談教師의 役割과 資格	19
III. 結 果 分 析 및 解 釋	26
1. 中學生들의 苦悶	26
2. 相談室運營에 대한 中學生들의 認識	36

IV. 要約 및 結論	47
1. 要約	47
2. 結論	49
參 考 文 獻	51
ABSTRACT	53
< 附 錄 >	57

表 目 次

< 표 1 > 연구의 대상	3
< 표 2 > 학생 자신의 고민	26
< 표 3 > 가족에 대한 고민	27
< 표 4 > 학교생활에 대한 고민	29
< 표 5 >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30
< 표 6 > 상담 경험	32
< 표 7 > 상담 동기	33
< 표 8 > 상담한 장소	34
< 표 9 > 상담 결과	35
< 표 10 > 상담실 존재 인식	36
< 표 11 > 상담실 존재 인식 사유	37
< 표 12 > 상담실 위치 인식	38
< 표 13 > 상담하는 친구에 대한 인식	40
< 표 14 > 상담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	41
< 표 15 > 상담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	42
< 표 16 > 상담실 역할에 대한 인식	43
< 표 17 > 상담실 역할에 대한 기대	45
< 표 18 > 상담 시간	46

감사의 글

이제껏 이끌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선배로서의 교훈과 학문으로 지도해 주신 교육행정학과의 교수님과 특별히 힘드신 중에도 지도해 주신 조점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다 쓰기까지 마음으로 혹은 시간을 들여 도움을 준 정숙 선배, 윤미, 판선, 효순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논문을 내 사랑하는 어머니께 바칩니다.

I. 緒 論

1. 研究의 必要性

학교 상담실 본래의 기능은 학생이 자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교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며,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모든 학교에서는 교육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서 상담실을 운영해 왔으나 오늘의 학교 실정은 그 설치 목적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담실 운영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상담실 본래의 기능을 얻지 못하는 데에는 상담교사의 자질 문제, 교사의 과중한 업무,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학생들의 또래 집단 중심의 문제 해결 방식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학생지도에 대한 학교의 자세는 개선되어야 한다.

체육청소년부가 발간한 청소년백서를 보면 중고등학생들의 범죄 건수는 1988년에 14,238건, 1989년에 15,666건, 1990년에 18,280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도 따지고 보면 학교 상담실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데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지금 우리나라 학교 교육의 제반사가 오늘날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국민적인 차원에서 선진국 수준에 합당한 교육 개혁 조치들을 모색하는 오늘날 과거 교육의 구태를 벗어나서 학생 중심의 인간 교육과 학생 복지 교육의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학생 문제와 학생 비행을

줄여가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와같은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학교 교육의 제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이제껏 교사나 행정가의 입장에서 이루어진 상담실 운영 현실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의 욕구 충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래 본 주제를 연구 과제로 설정하였다.

2. 研究의 目的

본 연구의 기본 목적은 서울 시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자신의 고민과 학교 상담실 운영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 바람직한 길을 찾아보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이 자신, 가족,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고민은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둘째, 학교 상담실 운영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의 정도를 살펴본다.

셋째, 학교 상담실 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모색해 본다.

3. 研究의 方法

1) 연구 대상

본 설문지는 1995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서울 시내에 있는 중학교 남

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 1> 표집 대상

() 안 %

성별	학년	배부	회수	통계처리
남	2	60	45 (75.0)	43 (95.6)
	3	120	102 (85.0)	100 (98.0)
계		180	157 (87.2)	143 (91.1)
여	2	110	105 (95.5)	105 (100)
	3	60	54 (90.0)	52 (96.3)
계		170	159 (93.5)	157 (98.7)
총계		350	306 (87.4)	300 (98.0)

2) 설문지 내용 구성

설문 문항은 모두 29개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학생들의 고민 : 3문항
- (2) 상담 경험 : 4문항
- (3) 상담실 이용 : 3문항
- (4) 상담실 위치 : 3문항
- (5) 상담실에 대한 인식 : 9문항
- (6)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 : 3문항
- (7) 상담 교사 자질 : 3문항
- (8) 상담 대상 : 1문항
- (9) 상담 시간 : 1문항
- (10) 개선점 : 5문항

4. 研究의 制限點

(1) 본 연구에서 설문 조사할 때 표본 추출을 서울 시내에 있는 국공립 중학교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모든 중학생에게 일반화 시키기 어렵다.

(2) 사용된 설문지 문항은 객관도, 타당도,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3) 변별력이 낮은 1학년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Ⅱ. 理論的 背景

1. 學校相談의 意義

학교상담이란 학교 상황에서 진행되는 상담활동을 뜻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상담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1)

G. E. Smith는 학교상담을 학습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학생은 상담을 통해 특정한 태도·흥미·능력 등이 특정한 교과 선택, 교육 계획, 직업 계획과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그 자신의 여러 가지 특성과 그의 생활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얻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한도에서 상담은 그에게 학습 과정이 되는 것이다.” 2)고 하였다.

Hott는 개개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화하며, 자신을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이 학교상담의 목적이며, 이 목적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3)

학교상담은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학생보다 경험이 많은 교사가 경험이 적은 학생이 생활하면서 겪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1) 박재황, 「한국 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한 상담 정책」(서울 : 교육평론, 1993), p.37.

2) G. E. Smith, 「Counselling in the Secondary School」(New York : The Macmillan Co., 1955), p.4.

3) Angelo V. Boy and Gerald J. Pine, 「The Counselor in the Schools : A Reconceptualization」(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68), p.5.

문제에 대해 직접·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상담은 그 영역이 넓은 것 같으면서도 제한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 것 같으면서 활동할 범위가 넓다. 그 넓은 범위에서의 상담은 상담자가 갖는 상담의 목표에 따라 각기 다른 상담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 개념, 자기 필요 등을 알게 되어 최종적으로 자기 실현을 하고, 남과 원만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과 시민적인 태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이다. 4)

학교상담에서 다루는 문제의 내용에 따라 그 영역을 나눌 수 있는데, 공식영은 8가지로 들고 있다.

㉠ 교육 상담 (Educational Counselling) - 학교 적응 지도, 공부 방법, 진로 지도 등 학습 활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적응을 돕고 지도하는 영역.

㉡ 직업 상담 (Vocational Counselling) - 학생이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등 장래 직업에 관련된 영역.

㉢ 인성, 정서 상담 (Personal - Emotional Counselling) - 성격 (내·외향성, 우월·열등감), 정서적 불안, 욕구 불만, 정신 건강, 개인 습관과 태도, 이성 문제 등 기타의 개인적, 심리적 적응 문제에 관한 영역.

㉣ 사회성 상담 (Social Counselling) - 학생이 교양을 쌓고, 인간을 존중하는 습관을 기르고, 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고, 집단에서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며, 협동과 봉사 정신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영역.

㉤ 가정 문제 상담 (Family Counselling) - 가정 내에서 학생과 부모와의 세대 차에서 오는 가치관의 갈등, 형제 간의 문제 등에 관한 영역.

㉥ 건강 상담 (Health Counselling) - 신체 결함, 운동 부족, 영양 실조, 위생 관념 등 주로 신체적인 면에 관한 영역.

4) 정원식·박성수, 「카운슬링의 원리」(서울 : 교육과학사, 1991), p.28.

㉞ 여가 선택 상담 (Leisure Counselling) - 학교나 사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게 돕는 영역. (운동, 음악, 미술, 창작, 독서, 놀이 등)

㉟ 종교 상담(Religious Counselling) - 신앙 갈등과 종교 이해를 돕는 영역. 5)

학교상담은 상담자가 교사이고 피상담자가 학생이며 학교라는 공적 체제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나름의 특성이 있다.

장혁표는 그 특성을 아홉 가지로 말한다. 6)

첫째, 모든 교사가 담당한다.

물론 충분히 연수를 받고 경험이 풍부한 교사가 중심이 될 필요는 있지만 모든 교사가 관련을 가진다는 자세가 중요하며, 학교상담의 기반은 학급 경영이다.

둘째, 모든 학생이 그 대상이 된다.

학교상담은 뭔가 문제가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적인 견지에서 모든 학생에게 행하는 서비스이다. 5% 이하의 소위 문제행동을 가진 학생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95%인 학생을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방과 문제의 조기 발견을 중시한다.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 학생 지도 혹은 학교상담이 학생에게 뭔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책을 세운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학교의 교육은 발전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 Friedenberg는 “ 많은 수의 소년 소녀들이 정서 발달 문제에

5) 공석영, 「생활지도 상담론」 (서울 : 학문사, 1991), pp.38 - 54.

6) 장혁표, 「학교상담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 1992), pp.55 - 57.

서 전문적 도움이 필요하며 학교는 그러한 도움을 주기에 적당한 장소이다.” 7)라고 했고, Arbuckle은 “학교는 여러 해 동안 학교의 활동 영역 속에다 ‘지금’ 혹은 ‘앞으로’ 또 ‘미래에’ 정신적으로 비정상인 것으로 기록될 지 모르는 모든 개인들을 수용한 유일한 사회적 기구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8)라고 말했다.

넷째, 발달적 상담 중심이다.

상담에서 동교 거부나 비행등 증상이 무거운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고 신경증 경향의 학생과 상담을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는 상담자들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소수의 중한 증상인 학생에 관심을 갖고 대부분의 학생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학교 상담에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중한 것은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 전체 학생의 발달을 원조하는 것에 힘을 다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친 서비스이다.

학교상담은 성격 변화에만 역점을 두지 않고 건강을 비롯해서 학습이나 매일의 생활에 관련있는 것을 다루어야 한다. 굳이 영역이라고 말한다면, 학생 지도에 속하는 모든 것이라 생각한다.

여섯째, 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 원조, 협력이다.

상담활동을 담당하는 자와 상담가는 전문가적 자세를 강하게 나타낼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교사들에게 협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고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며 그 활용에 관해서도 협력함으로써 상담자가 다른 교사들과의 인간 관계를 돈독히하고 결과적으로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7) E. Z. Friedenberg, 「The Vanishing Adolescent」 (New York : Dell Publishing Co.), p.102.

8) D. S. Arbuckle, 「A Semantic Excursio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1, 1962, p.64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일곱째, 학교 안에 있는 많은 자료를 활용한다.

전문 기관은 내담자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 학교는 학생에 관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자료를 학년 말에 버리지 말고 다음 해에 잘 활용한다면 상담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덟째, 총합적인 지도가 가능하다.

전문적인 상담자라 해도 고작 주 1회의 상담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그 성과도 큰 것이기는 하나 교사든 학생이든 한 사람과의 관계가 갖는 영향을 소중히 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 진단을 비롯해서 그 외의 진단을 통해서 학생의 실태를 알고, 이것을 유효하게 활용하게끔 해야 한다. 동시에 학교 규모에 따라 힘들 수도 있지만 전 교사 혹은 학년 간의 공동 이해와 공통의 의식을 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인간 관계를 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 상담의 중요한 특성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아홉째, 장기적인 지도와 추수 지도가 가능하다.

일반 상담에서 인간 관계가 중요하듯이 학교상담에서도 학생을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상담의 의의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학생이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필요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상담실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學校相談室의 機能

학교상담실은 상담자인 교사와 피상담자인 학생이 1 대 1 또는 1 대 소수가 만나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대화하는 특정한 장소이다. 반드시

일정한 곳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없어 규정짓기가 어려우나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상담활동을 하려면 형식적이거나 상담실은 필요하다고 본다. 상담실의 명칭은 협의실, 교도실, 생활지도실, 회의실 등 여러가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지만, 보통 상담실이라 많이 부르고 있다.

이영덕과 정원식은 상담실의 기능을 여섯 가지로 들고 있다.

- ㉠ 상담실은 발견자이다.
- ㉡ 상담실은 다정한 벗이다.
- ㉢ 상담실은 도전자이다.
- ㉣ 상담실은 시범자이다.
- ㉤ 상담실은 인도자이다.
- ㉥ 상담실은 관찰자이다.
- ㉦ 상담실은 계몽자이다. 9)

또 상담실이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 ㉠ 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 ㉡ 학생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이어야 한다.
- ㉢ 상담실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사고와 문제 해결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 ㉣ 상담의 전문성을 유지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 학생 생활지도의 센터가 되어야 한다.

상담은 생활지도의 핵심적인 활동이라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상담 이외의 다른 생활지도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생활지도 활동의 중

9) 정원식 · 이영덕, 「전계서」 pp.323 - 324.

심이 되어야 한다. 10)

학교 상담실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학교 생활지도 계획을 위한 기획실의 기능
- ㉡ 학생 개인의 이해와 지도의 기능
- ㉢ 각종 정보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센터로서의 기능
- ㉣ 생활지도를 위한 연구 기관의 기능
- ㉤ 교사들의 현직 교육 센터로서의 기능
- ㉥ 학교와 가정을 연결짓는 다리로서의 기능 11)

3. 學校相談室 運營의 要件

학교 안에서 상담은 상담실 뿐 아니라 일반 교실, 교무실, 별실 등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상담실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면 상담 교사 뿐 아니라 모든 교사와 학생이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담실이 다른 곳에 비해 안정되고 편한 곳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된다면 자신의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상담실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요건으로 상담실 위치와 상담 교사의 자질을 들 수 있겠다.

1)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상담이 그 주요 목적인 곳이다. 일반적인 대화는 장소를 가릴

10) 정원식·이영덕, 「전계서」 pp. 321 - 322.

11) 김충기, 「생활지도와 상담」(서울 : 교육과학사, 1993), pp.270 - 271.

필요가 없지만 상담에서는 주의 집중을 해야 하며 학생 개인의 내면 세계가 드러나고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상담실과 같은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실은 조용하고 밝고 명랑하며 온화한 분위기와 학생을 잘 알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편리한 곳에 있어야 한다. 이상적으로 상담실이 만들어지려면 학교 건축 설계 때부터 사전에 심리·정서적 요인을 참작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2)

Rober, Smith, Erickson등이 제시한 공통적인 위치 선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3)

- ㉠ 학생, 교사, 학부형, 방문객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 학생 기록을 보관한 곳 (교무실), 양호실, 서무실, 도서관 등에 가깝적이면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
- ㉢ 음악실, 체육실, 공작실 등으로부터 떨어진 조용한 곳이어야 한다.
- ㉣ 상담활동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 지도 활동을 실시하는데 적합한 곳이어야 한다.

2) 상담 교사의 자질

Charles Brooks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비례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을 했듯이 ‘상담의 질은 상담 교사의 질에 비례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14)

상담 교사의 자질을 (1) 상담자의 인성적 특징 (2) 상담자의 인간적 자

12) 김충기, 「전계서」 p.272.

13) E. C. Roeber, G. E. Smith, C. E. Erickson,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Guidance Services」 (New York : McGraw Hill Book Co., 1975), pp.30 - 32.

14) 김충기, 「전계서」 p.260.

질 (3) 상담자의 자세로 나누어 논의해 보겠다.

(1) 상담자의 인성적 특징

김충기와 이재창은 유능한 상담자의 인성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15)

㉠ 유능한 상담자는 그들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이다. 그들은 정서적 반응을 통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

㉡ 유능한 상담자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그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고 가치 체계와 연관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 유능한 상담자는 다른 사람과 온정적이고 깊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상담자는 다른 사람의 감정, 견해, 인격 등을 존중할 수 있다. 상담자는 돌볼 수 있는 능력과 보살핌에 대하여 두려움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광범위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

㉣ 유능한 상담자는 다른 사람을 실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진실한 사람은 말과 행동에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여러가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대답을 아는 척 하지 않는다. 적개심을 느낄 때 순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 유능한 상담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15) 김충기·이재창, 「상담과 심리치료」(서울 : 교육과학사, 1986), pp.44 - 48.

유능한 상담자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약점을 다룰 수 있다. 그들은 책임을 전가하거나 타인을 나무라기보다는 행동을 수용한다.

㉞ 유능한 상담자는 현실적인 포부 수준을 발전시킨다.

유능한 상담자는 도달할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실패를 무난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Dinkmeyer와 Carlson은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9가지를 들고 있다. 16)

㉟ 상담자는 공감적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위 세계를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㊱ 상담자는 유목적적으로 학생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한다. 그는 촉진적 관계와 작업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유능해야 하는 반면에 시간을 지체롭게 써야 한다.

㊲ 상담자는 인간의 욕구에 민감해야 한다.

그는 Maslow의 욕구 단계를 이해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㊳ 상담자는 심리적 역동, 동기, 인간 행동의 목적을 인식해야 한다.

훈련을 통해서 심리적 역동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기 지금에서 다룰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㊴ 상담자는 교육 기관에서 집단 역동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집단의 영향력을 인식해야 한다. 즉 제도나 부모와 같은 외부의 힘과 자신의 목표와 같은 내부의 힘의 맥락에서 학생을 보아야

16) 허작, 「고교생의 교사 역할 기대」(석사 학위 논문, 전주대 교육대학원), pp.459 - 463.

한다.

㉞ 상담자는 서로 믿고 서로 존경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집단이나 개인에게 자신있는 자문자로 나타나야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

㉟ 상담자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모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는 인간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주관율 가져야 한다. 상담자는 인생에 용기있게 접근해야 한다. 그는 실수할 수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다. 그러나 실수는 학습 경험이며 실수를 할 두려움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이러한 용기는 집단 경험과 실제 경험 지도를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

㊱ 상담자는 창의력, 자생력, 상상력이 풍부해야 한다.

자문자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융통성과 다양한 기대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즉 학교장의 질서와 구조에 대한 요구와 학생의 참여, 배려, 관심에 대한 요구를 다 충족시켜야 한다.

㊲ 상담자는 자신을 인간 관계 전문가로 보는 학교 행정가로부터 아동 심리학의 전문가로 보는 부모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 수준에서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

상담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기술만 지녔다고 하여 상담자의 자질을 모두 갖춘 것은 아니다. 효과적인 상담 관계의 발전에는 상담자의 사람됨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바람직한 인간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㉓ 인간에 대한 선의와 관심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긍정적 관점과 다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신실한 관심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상담자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사람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그 나뉠이로써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심하게 상심하고 있거나 절망 상태에 빠진 학생일 수록 상담자의 온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㉔ 자신에 대한 각성

상담자는 자기 자신의 목표, 정체, 동기, 요구, 가치관, 느낌,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상담자는 내담자를 도울 자격이 없다. 때문에 상담자는 항상 새로운 삶의 경험과 여러가지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자신에 대한 각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㉕ 용기

효율적인 상담자의 가장 중요한 개인적 특성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용기이다. 상담자는 실수나 실패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행동을 모험적으로 시도해 보는 용기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㉖ 창도적 태도

이는 창의적이면서 모든 일에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상담자는 항상 참신한 정신과 태도로 내담자를 상대해야 한다. 습관화된 기술이나 프로그램화된 자신을 학생에게 내놓아서는 안된다. 끊임없이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기존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가능한 한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행동 반응에서 탈피하여 상담 관계에서 항상 주도적인 위치를 지켜야 한다. 학생의 부정적인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하거나 쉽사리 위협을 받지 않음은 물론, 어떠한 반응에도 한 차원 높은 입장에서 이를 수용한 후 생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 끈기

상담활동은 보람되고 즐거울 수도 있으나, 때로는 힘이 들고 고달프기도 하다. 때문에 상담자는 어떠한 압력과 고달픔에도 버티어 나갈 끈기를 길러야 한다. 상담이 잘 진행될 때는 힘이 나지만, 학생이 반항적이 되거나 도중에 상담을 중단해 버릴 때 쉽사리 사기가 저하되기 쉽다. 때문에 상담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심신의 힘을 길러야 한다.

㉡ 유모어 감각

상담은 엄숙하고 힘드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유모어적 차원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상담 관계에서 단순히 고조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가끔 웃음과 유모어를 통하여 심신의 이완을 도모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효율적인 상담자는 유모어 감각을 발달시킨 다음, 이를 상담 과정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7)

(3) 내담자의 자세

㉢ 진실성, 일치

상담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아마도 상담자의 순수성과 일치성일 것이다. 일치성은 전문적인 태도와 허세를 나타낼 필요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담자 능력에 준한다.

17) 이형득, 「상담이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2), pp.82 - 87.

상담자의 진실성은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자는 학생이 말하는 내용에 반응하고 경청하며, 다른 면에서는 학생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반응에 예리하게 대처하는 상담자는 학생의 성장을 도모한다.

㉠ 공감적 이해

공감은 학생과 내적 참조 체제를 채택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학생의 개인적 세계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다시 말해 주어야 한다. 공감은 치료자가 내담자의 감정 즉 학생의 분노, 후회, 공포, 적개심, 억압 그리고 기쁨 등에 경청하고 반응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담자가 학생의 세계를 주의깊게 듣고 학생이 경험한 감정을 정확히 확인할 때 학생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다. 공감은 분리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상담자 자신에게 초월하도록 한다.

공감적 이해는 또한 상담자가 학생의 참조 체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학생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이 자기의 사고, 감정, 가치, 태도, 희망, 포부(aspiration)등에 관한 의견을 나눌 때에 상담자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쁜 기준을 두지 않고 듣는다.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 학생은 더욱 자신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 긍정적 관심 또는 존중

긍정적 관심이란 상담 과정에서 기초가 된다. 많은 상담자들은 긍정적으로 여러 내담자들에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협력 관계란 다른 사람들이 공격적임을 발견하는 행동, 방어 모습들을 능가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상담자는 다른 상담자에게 학생을 맡겨야 한다.

존중이나 긍정적 관심은 상담 관계에 있어서 상담자의 진실성이나 일치감에 다소 관련이 있다. 자기 생활이나 감정, 반응등에 적용할 수 있는 학생의 능력을 존중하지 않는 상담자는 학생의 행동에 사상이나 감정 또는 반응을 나누기가 어려움을 알게 된다. 나누기는 학생의 성장에 필수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학생을 존중하지 않으면 상담자는 관계 형성에서 학생을 직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같이 상담자가 학생을 존중하려면 상담 관계에서 정직하고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㉔ 구체화 또는 표현의 특수성

상담 관계에서 구체화는 매우 중요하다. 상담자에게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잘 점검할 수 있게 도와 줄 책임이 있다. 만일 학생이 혼동되고 좌절한다면 상담자는 학생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을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고 감정에 대한 자극을 분류하도록 노력한다. 18)

4. 學校 相談教師의 役割과 資格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학교 상담교사는 1차적으로 교사로서의 많은 기능을 수행하며, 그에 부가하여 인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반 교육과 상담 봉사자의 동시 수행자이어야 할 것이다. 즉, 상담을 이유로 교사직을 소홀히 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

우리 나라에서 상담을 정착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는 상담자 역

18) 김충기·이재창, 「전세서」 pp.182 - 187.

19) 김형태, 「학교 카운슬러의 자격과 역할」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 교육대학원, 1990), p.25.

할의 규명과 상담자직의 제도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지만 같은 뜻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상담자가 수행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전문가들마저 의견이 다른 형편이다. 현재 상담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등학교 상담교사와 학생들 사이에도 상담자의 역할 기능에 관한 기대상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늘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20)

상담 교사의 역할과 자격을 (1) 교사로서의 일반적 역할 (2) 교사로서의 심리적 역할 (3) 상담 교사로서의 역할 (4) 상담 교사의 자격으로 나누어 논의해 보겠다.

1) 교사로서의 일반적 역할 21)

㉠ 인간형성자

피교육자의 현실적 모습(sein)을 마땅히 있어야 할 당위적 모습(sollen)으로 변화시키면서 잠재된 소질과 가능성을 최대한 계발시킨다.

㉡ 유의한 지식과 학문의 전달자

지식은 항상 교육의 중심 내용이다. 지식 없는 교육은 무의미하다.

㉢ 교육예술가

직관력, 창의성, 미적 감각과 뜨거운 정열과 정교한 기술을 복합시켜 인간조형을 만든다.

㉣ 학습자

자신과 학생, 담당 교과와 시대 환경에 대해 평생 학습자이어야 한다.

20)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 박영사, 1982), p.387.

21) 허작, 「전계서」 pp.459 - 463.

2) 교사로서의 심리적 역할 22)

㉠ 사회 대표자

학생의 사회화 과정에서 교사는 사회의 가치, 규범, 생활 양식을 대표하여 인정, 격려, 금지, 꾸중을 통해 사회의 기대를 교육에 반영시킨다.

㉡ 판단자

성적 결정, 행동 평가 기록, 진급, 처벌 여부 등을 판단 결정한다.

㉢ 지식자원

지식 제공자로서의 풍부한 보고가 되어야 한다.

㉣ 학습 조력자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적용할 때 조력하여 어떤 개념과 원리를 그 발달 단계에 알맞게 재구성해 주고 당면한 문제 해결을 돕는다.

㉤ 불안 제거자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실존적 불안과 이해 부족 그리고 능력 부족에서 오는 갈등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 과도한 경쟁, 실패 경험, 과잉 기대, 일관성 없는 지도 등은 불안 조성의 원인이 된다.

㉥ 자아 옹호자

자기 부족과 열등감 속에 있는 학생에게 목표를 세우게 하고, 작업 과정에서 성공감을 느끼게 하고, 성취에 대한 보람과 인정을 얻도록 하여 자아를 옹호 증강시켜야 한다.

㉦ 동일화 대상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학생의 행동 방식은 교사를 닮는다. 말투, 걸음걸

22) F. Reddle, W. Wattenberg, 「Mental Hygiene Teaching」 (New York : Harcourt, Brace and Co., 1951), pp.237 - 242.

이, 필체에서 사고 방식, 태도, 가치 판단까지 심층적 행동 특성을 닮게 된다.

㉠ 부모 대응

부모로서의 역할, 사랑 공급자, 결혼 가정의 보충자 등이 되어야 한다.

㉡ 친구

교사와 학생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로서 회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허물없는 사이어야 한다.

3) 상담교사로서의 역할

황용연과 윤희준은 상담교사에게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3)

㉠ 개인, 집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활동을 하는 일

㉡ 각종 심리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일

㉢ 학교 생활지도 계획 입안·수행시 지도력을 발휘하는 일

㉣ 학생 활동과 기초 정보를 기록, 활용하는 제도를 발전시키는 일

㉤ 학교 생활지도, 진로지도를 계획, 수립, 발전시키는 일

㉥ 학교의 定置 활동과 追隨 지도를 수행하는 일

㉦ 교직원들의 연구 활동과 재교육 훈련을 계획, 수행하는 일

㉧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 (정신과 병원, 소년 감별소, 소년원, 부녀 아동 상담소, 어린이 재단, 홀트 아동 복지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며 필요할 때 위탁과 인계 수행하는 일

㉨ 학부모를 돕고 긴밀한 유대와 협조를 유지하는 일

23) 황용연·윤희준, 「생활지도」(서울 : 교육출판사, 1981), pp.328 - 330.

Smith와 Erikson은 상담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24)

- ㉠ 상담을 원하거나 타인이 인제, 위탁한 모든 학생을 상담해야 함.
- ㉡ 다른 교사에게 생활 지도 봉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켜야 함.
- ㉢ 생활지도 방침을 결정하고 개인, 집단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함.
- ㉣ 생활지도 방침을 수립함.
- ㉤ 학생에 대한 조사법, 직업, 정보, 지역 사회 자원, 학교 안에서의 위탁처를 충분히 확보함.
- ㉥ 각 교사들이 학생들의 개인차를 발견하고 지도하도록 도움.
- ㉦ 학교 안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도록 학생에 대한 자료를 체계있게 수집함.
- ㉧ 학생들의 복리를 위해 개인이나 단체들과 협력함.

이영덕과 정원식은 상담자가 학생을 상담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10가지를 들었다. 25)

- ① 상담자는 학생이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갖지 않고 친근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한다.
- ② 상담자는 학생 스스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 ③ 상담자는 문제해결의 주체가 학생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 ④ 상담자는 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 ⑤ 상담자는 학생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 ⑥ 상담자는 학생의 진술 내용보다도 그 뒤에 숨어 있는 느낌이나 감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24) E. C. Roeber and G. E. Smith and C. E. Erickson, 「op. cit.」 pp.30 - 32.

25) 정원식·이영덕, 「생활지도의 원리와 실제」(서울 : 교육과학사, 1991), pp.119 - 121.

⑦ 상담자는 학생이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촉구하고 격려해야 한다.

⑧ 상담자는 광범한 질문을 해서 상담으로 도입하고 진행한다.

⑨ 상담자는 비판하거나, 억압하거나,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상담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⑩ 상담자는 꾸준한 인내와 노력으로 상담한다.

4) 상담교사의 자격

1980년 4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 고등학교에서 상담 주임을 배치해야 하는 학교에서 유자격 상담 주임 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중학교가 59.7 % , 고등학교가 63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 무자격 교사를 상담 주임 교사로 배치한 학교가 21.9 %, 아예 상담 주임 교사 자체가 없는 학교도 19.15 %라고 한다.

모든 교사가 상담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지만, 교육부 훈령 제 477호 주임 교사 임용규정 제 4조 1항과 2항, 그리고 제 5조의 3항에서 상담 주임 교사의 자격을 특별히 규정해 놓고 있다.

제 4조 1항 : 주임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중 (교장, 교감, 또는 상담 교사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 4조 2항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주임 교사를 임용함에 있어서 중등학교의 상담 주임 교사는 상담 교사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 5조 3항 : 주임 교사는 주임 종별에 구애됨이 없이 주임 교사 상호간에 교류할 수 있다. 다만, 임용 자격을 달리 하는 주임 교사 간의 상호 교류는 변경되는 주임 교사의 자격이 구비 된 자라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 중등학교 상담 주임 교사의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㉓ 중등학교 정교사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교도 양성 강습을 받은 자

㉔ 중등학교 정교사 (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교도 양성 강습을 받은 자

㉕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교도 양성 강습을 받은 자

㉖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과 또는 심리학과를 전공하고 5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교도 양성 강습을 받은 자 26)로 되어 있다.

전국의 중등학교 상담 주임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984년 현재 4,618명이며 (1989년까지는 정확한 통계가 잡혀 있지 않음), 학교 수는 3,878개교로써 한 학교당 평균 1.19명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 후 년 800여명씩 상담 주임 교사 양성 강습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주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4,000여명이 배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자격증 소지자들이 물론 전문가는 아니다. 단기간의 강습 정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 27)

26) 교육부, 「교육법전 - 교사 자격 기준」 (서울 : 교육부, 1992), p.22.

27) 김충기, 「전게서」 p.268.

Ⅲ. 結果 分析 및 解釋

1. 中學生들의 苦悶

1) 중학생들의 자신의 고민에 대한 인식

<표 2> 자신에 대한 고민

() : %

문항 성별	학습	성격	나쁜버릇	친구	외모	무반응	계
남	78(54.5)	28(19.6)	7(4.9)	10(7.0)	5 (3.5)	15(10.5)	143 (47.7)
여	63(40.1)	37(23.6)	3(1.9)	15(9.0)	22(14.0)	17(10.8)	157 (52.3)
계	140(47.0)	65(21.7)	10(3.3)	25(8.3)	27 (9.0)	32(10.7)	300(100.0)

$$\chi^2 = 20.621 \quad df = 4 \quad p > 0.001$$

문항 학년	학습	성격	나쁜버릇	친구	외모	무반응	계
2	64(43.2)	32(21.6)	5(3.4)	16(10.8)	16(10.8)	15(10.1)	148 (49.3)
3	76(50.0)	33(21.7)	5(3.3)	10 (6.6)	11 (7.2)	17(11.2)	152 (50.7)
계	140(46.7)	65(42.8)	10(3.3)	26 (8.7)	27 (9.0)	32(10.7)	300(100.0)

$$\chi^2 = 8.030 \quad df = 4 \quad p > 0.05$$

위 <표 2>는 자신의 고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20.621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8.456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 54.5%와 여학생 40.1%가 학습문제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성격 19.6%, 친구 7% 순으로, 여학생은 성격 23.6%, 외모

14% 순으로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격과 외모에 관심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8.030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9.488보다 약간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학년은 학습 43.2%와 성격 21.6%, 3학년은 학습 50%와 성격 21.7%순으로 나타나, 3학년이 2학년보다 학습과 성격으로 더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고민의 내용

<표 3> 가족에 대한 고민

() : %

문항 성별	부모과잉 보호,간섭	부모 다툼	부모 이혼,사별	가난	무관심	형제자매 다툼	무반응	계
남	24(16.8)	6 (4.2)	11(7.7)	8(5.6)	5(3.5)	43 (3.0)	46(32.2)	143 (47.7)
여	29(18.5)	16(10.2)	3(1.9)	5(3.2)	5(3.2)	46(29.3)	53(33.8)	157 (52.3)
계	53(17.7)	22 (7.3)	14(4.7)	13(4.3)	10(3.3)	89(29.7)	99(33.0)	300(100.0)

$$\chi^2 = 11.262 \quad df = 5 \quad p > 0.05$$

문항 학년	부모과잉 보호,간섭	부모 다툼	부모 이혼,사별	가난	무관심	형제자매 다툼	무반응	계
2	29(19.6)	12(8.1)	7(4.7)	8(5.4)	6(4.1)	42(28.4)	44(29.7)	148 (49.3)
3	24(15.8)	10(6.6)	7(4.6)	5(3.3)	4(2.6)	47(30.9)	55(36.2)	152 (50.7)
계	53(17.7)	22(7.3)	14(4.7)	13(4.3)	10(3.3)	89(29.7)	99(33.0)	300(100.0)

$$\chi^2 = 16.863 \quad df = 5 \quad p > 0.05$$

위 <표 3>은 가족에 대한 고민의 내용을 알아본 것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1.262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1.070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항 형제	부모과잉 보호,간섭	부모 다툼	부모 이혼,사별	가난	무관심	형제자매 다툼	계
첫째	22(25.6)	14(16.3)	10(11.6)	6(7.0)	2 (2.3)	32(37.2)	86 (43.9)
둘째	17(25.0)	6 (8.8)	2(3.0)	2(2.9)	3 (4.4)	38(55.9)	68 (34.7)
셋째	13(31.0)	2 (4.8)	1(2.4)	4(9.5)	5(11.9)	17(40.5)	42 (21.4)
계	52(26.5)	22(11.2)	13(6.6)	10(5.1)	12 (6.1)	87(44.4)	196(100.0)

$$\chi^2 = 23.611 \quad df = 10 \quad p > 0.01$$

위의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 30.1%와 남학생 29.3%가 형제 자매가 다투는 것으로 인해 가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것에 7.7%로 반응해 여학생 1.9%보다 높고, 여학생은 부모가 서로 다투는 것에 10.2%로 반응해 남학생 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6.863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1.07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학년이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보호에 19.6%로 3학년 15.8%보다 약간 높은 반응을 보였고, 3학년은 형제 자매 다툼에 30.9%로 2학년 28.4%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다.

형제 순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23.611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3.209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는 부모 다툼에 16.3%로 반응해 둘째 8.8%, 셋째 4.8%보다 높게 나타났고, 둘째는 형제 다툼에 55.9%로 반응해 첫째 37.2%, 셋째 40.5%보다 나타났다. 셋째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보호에 31.0%로 반응해 첫째

25.6%, 둘째 25%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고민에 대한 인식정도

<표 4>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

() : %

문항 성별	교사	친구	학습 방법	교칙	무반응	계
남	33(23.1)	30(21.0)	42(29.4)	16(11.2)	22(15.4)	143 (47.7)
여	39(24.8)	15 (9.6)	53(33.8)	32(20.4)	18(11.5)	157 (52.3)
계	72(24.0)	45(15.0)	95(31.7)	48(16.0)	40(13.3)	300(100.0)

$$\chi^2 = 29.359 \quad df = 3 \quad p > 0.001$$

문항 학년	교사	친구	학습 방법	교칙	무반응	계
2	41(28.7)	14 (9.8)	56(39.2)	13 (9.1)	19(13.3)	148 (49.3)
3	31(19.7)	31(19.7)	39(24.8)	35(22.3)	21(13.4)	152 (50.7)
계	72(24.0)	45(15.0)	95(31.7)	48(16.0)	40(13.3)	300(100.0)

$$\chi^2 = 40.033 \quad df = 3 \quad p > 0.001$$

위 <표 4>는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고민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아본 것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29.359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268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 33.8%와 남학생 29.4%가 학습 방법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반응했다.

남학생은 친구 문제로 여학생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21%, 9.6%), 여학생은 교칙 때문에 남학생보다 더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4%,

11.2%).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40.033으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2648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학년이 학습방법 문제에 39.2%와 교사에 28.7%로 반응해 3학년 24.8%와 19.7%보다 높게 나타났고, 3학년은 교칙 22.3%와 친구 19.7%로 반응해 2학년 9.1%와 9.8%보다 높게 나타났다.

4) 중학생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에 대한 인식

<표 5>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 : %

문항 성별	교사	친구	부모	형제	종교가	무반응	계
남	16(11.2)	70(49.0)	29(20.3)	9(6.3)	5(3.5)	14(9.8)	143 (47.7)
여	23(14.6)	92(58.6)	27(17.2)	6(3.8)	3(1.9)	6(3.8)	157 (52.3)
계	39(13.0)	162(54.0)	56(18.7)	15(5.0)	8(2.7)	20(6.7)	300(100.0)

$$\chi^2 = 8.685 \quad df = 4 \quad p > 0.05$$

문항 학년	교사	친구	부모	형제	종교가	무반응	계
2	15(10.1)	81(54.7)	31(20.9)	9(6.1)	5(3.4)	7(4.7)	148 (49.3)
3	24(15.8)	81(53.3)	25(16.4)	6(3.9)	3(2.0)	13(8.6)	152 (50.7)
계	39(13.0)	162(54.0)	56(18.7)	15(5.0)	8(2.7)	20(6.7)	300(100.0)

$$\chi^2 = 10.268 \quad df = 4 \quad p > 0.05$$

위 <표 5>는 고민을 함께 나눌 자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바,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8.685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9.488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항 종교	교사	친구	부모	형제	종교가	계
기독교	18(16.4)	64(58.2)	18(16.4)	5(4.6)	5(4.6)	110 (42.3)
천주교	3(10.0)	19(63.3)	6(20.0)	1(3.3)	1(3.3)	30 (11.6)
불교	6 (9.7)	35(56.5)	17(27.4)	4(6.5)	0(0.0)	62 (23.9)
기타	8(13.8)	33(56.9)	13(22.4)	4(6.9)	0(0.0)	58 (22.3)
계	29(11.2)	151(58.1)	54(20.8)	14(5.4)	6(2.3)	260(100.0)

$$\chi^2 = 21.441 \quad df = 12 \quad p > 0.05$$

위의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 58.6%와 남학생 49%가 친구와 고민을 나누겠다고 반응해서 중학생에게 친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고민을 나누겠다고 한 여학생은 15.2%로 남학생 12.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0.268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9.488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학년 15.8%가 교사와 고민을 나누고 싶다고 해 2학년 10.1%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3학년의 진로 문제와 관련된 듯하다.

종교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21.441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1.026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사와 고민을 나누고 싶다에 기독교생 16.4%가 반응해서 천주교 10%, 불교 9.7% 보다 높게 나타났다.

5) 중학생의 상담경험

<표 6>은 상담경험의 정도를 알아 본 결과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3.384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3.841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6> 상담 경험

() : %

문항 성별	있 다	없 다	계
남	42(29.4)	101(70.6)	143 (47.7)
여	62(39.5)	95(60.5)	157 (52.3)
계	104(34.7)	196(65.3)	300(100.0)

$$\chi^2 = 3.384 \quad df = 1 \quad p > 0.05$$

문항 학년	있 다	없 다	계
2	37(25.0)	11(75.0)	148 (49.3)
3	66(43.4)	86(56.6)	152 (50.7)
계	103(34.3)	197(65.7)	300(100.0)

$$\chi^2 = 13.153 \quad df = 1 \quad p > 0.001$$

위의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담 경험이 있다에 여학생이 39.5% 반응해 남학생 29.4%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3.153으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0.827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학년 43.4%가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2학년 25% 보다 높게 나타났다.

6) 중학생들의 상담동기

<표 7> 상담 동기

() : %

문항 성별	자원	상담교사가 부름	일반교사가 부름	친구가 권함	자원 봉사자	무반응	계
남	7(4.9)	7(4.9)	34(23.8)	2(1.4)	4(2.8)	89(62.2)	143 (47.7)
여	6(3.8)	5(3.2)	53(33.8)	1(0.6)	4(2.6)	88(56.1)	157 (52.3)
계	13(4.3)	12(4.0)	87(29.0)	3(1.0)	8(2.7)	177(59.0)	300(100.0)

$$\chi^2 = 8.945 \quad df = 4 \quad p > 0.05$$

문항 학년	자원	상담교사가 부름	일반교사가 부름	친구가 권함	자원 봉사자	무반응	계
2	6(4.1)	4(2.7)	32(21.6)	3(2.0)	3(2.0)	100(67.6)	148 (49.3)
3	7(4.6)	8(5.3)	55(36.2)	0(0.0)	5(3.3)	77(50.7)	152 (50.7)
계	13(4.3)	12(4.0)	87(29.0)	3(1.0)	8(2.7)	177(59.0)	300(100.0)

$$\chi^2 = 7.345 \quad df = 4 \quad p > 0.05$$

위 <표 7>은 상담동기에 대한 반응으로써,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8.945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9.488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 33.8%와 남학생 23.8%가 교사가 불러서 상담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했고, 스스로 상담을 한 경우는 남학생이 4.9%로 여학생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7.354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9.488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3학년 36.2%, 2학년 21.6%가 일반 교사가 불러서 상담했다고 반응해 중학생들은 스스로 상담을 하기보다는 교사가 불러주어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중학생들의 상담장소

<표 8> 상담한 장소

() : %

문항 성별	상담실	교무실	별실	일반교실	무반응	계
남	9(6.3)	27(18.9)	2(1.4)	15(10.5)	90(62.9)	143 (47.7)
여	13(8.3)	28(17.8)	8(5.1)	16(10.2)	92(58.6)	157 (52.3)
계	22(7.3)	55(18.3)	10(3.3)	31(10.3)	182(60.7)	300(100.0)

$$\chi^2 = 18.202 \quad df = 3 \quad p > 0.001$$

문항 학년	상담실	교무실	별실	일반교실	무반응	계
2	12(8.1)	23(15.5)	6(4.1)	6(4.1)	101(68.2)	148 (49.3)
3	10(6.6)	51(33.6)	4(2.6)	6(3.9)	81(53.3)	152 (50.7)
계	22(7.3)	74(48.7)	10(3.3)	12(4.0)	182(60.7)	300(100.0)

$$1 \quad \chi^2 = 22.081 \quad df = 3 \quad p > 0.01$$

위 <표 8>은 중학생들이 상담하는 곳을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8.202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268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 17.8%와 남학생 18.9%가 교무실에서 상담했다고 반응했는데, 이는 교사들이 불러서 상담했다는 <표 7>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22.081로 이는 $p=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1.345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실에서 상담을 한 경우는 2학년이 8.1%, 3학년이 6.6%로 반응해

교사들이 상담을 할 때 상담실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중학생들의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

<표 9> 상담 결과

() : %

문항 성별	도움됨	도움 안 됨	상담한 자체 만족	무반응	계
남	6(4.2)	20(14.0)	18(12.6)	99(69.2)	143 (47.7)
여	12(7.6)	24(15.3)	22(14.0)	99(63.1)	157 (52.3)
계	18(6.0)	44(14.7)	40(13.3)	198(66.0)	300(100.0)

$$\chi^2 = 1.403 \quad df = 2 \quad p > 0.05$$

문항 학년	도움됨	도움 안 됨	상담한 자체 만족	무반응	계
2	9(6.1)	16(10.8)	16(10.8)	107(72.3)	148 (49.3)
3	9(5.9)	27(17.8)	25(16.4)	91(59.9)	152 (50.7)
계	18(6.0)	43(14.3)	41(13.7)	198(66.0)	300(100.0)

$$\chi^2 = 3.640 \quad df = 2 \quad p > 0.05$$

위 <표 9>는 상담 결과에 대한 만족도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403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5.991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 15.3%와 남학생 14%가 상담한 결과에 대해 도움이 안 되었다고 반응했고, 도움이 됨에 여학생 7.6%가 응답해 남학생 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3.640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5.991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로 밝혀졌다.

도움이 안 되었다에 3학년이 17.8%, 2학년 10.8%로 반응해 3학년이 좀 더 불만족인 것으로 보인다.

2. 相談室運營에 대한 中學生들의 認識

1) 중학생들의 상담실 존재 인지도

<표 10> 상담실 존재 인식

() : %

문항 성별	안 다	모 른 다	무 반 응	계
남	101(70.6)	22(15.4)	20(14.0)	143 (47.7)
여	127(80.9)	12 (7.6)	18(11.5)	157 (52.3)
계	228(76.0)	34(11.3)	38(12.7)	300(100.0)

$$\chi^2 = 4.947 \quad df = 1 \quad p > 0.05$$

문항 학년	안 다	모 른 다	무 반 응	계
2	108(73.0)	16(10.8)	24(16.2)	148 (49.3)
3	119(78.3)	19(12.5)	14 (9.2)	152 (50.7)
계	227(75.7)	35(11.7)	38(12.7)	300(100.00)

$$\chi^2 = 0.196 \quad df = 1 \quad p > 0.05$$

<표 10>는 상담실 존재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4.947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3.841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담실이 있는 것을 안다에 여

학생 80.9%와 남학생 70.6%가 반응해 여학생이 좀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0.196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3.841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실이 있는 것을 안다에 3학년이 78.3%, 2학년 73%로 반응해 전체 응답 학생 86.6%가 상담실이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중학생들의 상담실 존재 인지 사유

<표 11> 상담실 존재 인지 사유

		() : %				
문항 성별	학교 소개시간	친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우연히	무반응	계
남	17(11.9)	2(1.4)	27(18.9)	69(48.3)	28(19.6)	143 (47.7)
여	33(20.0)	8(5.1)	36(22.9)	42(26.8)	38(24.2)	157 (52.3)
계	50(16.7)	10(3.3)	63(21.0)	110(36.7)	66(22.0)	300(100.0)
$\chi^2 = 0.834 \quad df = 3 \quad p > 0.05$						
문항 학년	학교 소개시간	친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우연히	무반응	계
2	36(24.3)	7(4.7)	45(30.4)	39(26.4)	21(14.2)	148 (49.3)
3	14 (9.2)	5(2.0)	18(11.8)	72(47.4)	45(29.6)	152 (50.7)
계	50(16.7)	10(3.3)	63(21.0)	111(37.0)	66(22.0)	300(100.0)
$\chi^2 = 34.559 \quad df = 3 \quad p > 0.001$						

위 <표 11>은 상담실 존재 인식 사유에 대한 결과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0.834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은 우연히 알게 되었다에 48.3%로 여학생은 26.8%로 응답했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34.559로 이는 $p = 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268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은 우연히 알게 되었다에 48.3%로 여학생은 26.8%로 응답했다.

2학년이 학교 소개 시간 (24.3%), 교사 (30.4)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4.7)에 59.4% 응답해, 3학년 (9.2%, 11.8%, 2.0%) 32%와 큰 대조가 된다.

3) 중학생들이 상담실 위치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이유

<표 12> 상담실 위치가 못 마땅한 이유 () : %

문항 성별	별 관	매점이 가까움	일반교실이 가까움	교무실이 가까움	무반응	계
남	34(23.8)	8(5.6)	34(23.8)	3(2.1)	64(44.8)	143 (47.7)
여	30(19.1)	3(1.9)	80(51.0)	4(2.5)	40(25.5)	157 (52.3)
계	64(21.3)	11(3.7)	114(38.0)	7(2.3)	104(34.7)	300(100.0)

$$\chi^2 = 15.836 \quad df = 3 \quad p > 0.001$$

문항 학년	별 관	매점이 가까움	일반교실이 가까움	교무실이 가까움	무반응	계
2	33(22.3)	5(3.4)	64(43.2)	2(1.4)	44(29.7)	148 (49.3)
3	30(19.7)	7(4.6)	50(32.9)	5(3.3)	60(39.5)	152 (50.7)
계	63(21.0)	12(4.0)	114(38.0)	7(2.3)	104(34.7)	300(100.0)

$$\chi^2 = 6.003 \quad df = 3 \quad p > 0.05$$

위 <표 12>는 상담실 위치가 못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이유에 대한 결과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5.836으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6.268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학생은 눈에 안 뜨이는 별관과 일반 교실이 가까운 것에 23.8%로 같은 반응을 보였고, 여학생은 일반 교실이 가까운 것에 51%로 응답했다. 이로 보아 남학생은 상담실의 위치가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여학생은 일반 교실과 떨어진 곳에 상담실이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6.003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2학년 61.5%와 3학년 54.4%가 상담실이 일반 교실 가까이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응답했다.

4) 상담 교사와 상담 하는 친구에 대한 중학생들의 견해

<표 13>은 상담 교사와 상담하는 친구에 대한 중학생들의 견해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5.746으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8.465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은 고민이 많아 보임에 31.2%로 응답해 남학생 21%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교사에게 잘 보이려

는 것에 3.5%로 여학생 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3> 상담 교사와 상담하는 친구에 대한 견해

() : %

문항 성별	똑같은 잘 보이려는 것	교사에게 외로워 보임	고민이 많아 보임	문제학생 같음	무반응	계
남	34(23.8)	5(3.5)	20(14.0)	30(21.0)	12 (8.4)	42(29.4)
여	42(26.8)	0(0.0)	24(15.3)	49(31.2)	20(12.7)	22(14.0)
계	76(25.3)	5(1.7)	44(14.7)	79(26.3)	32(10.7)	64(21.3)

$$\chi^2 = 15.746 \quad df = 4 \quad p > 0.001$$

문항 학년	똑같은 잘 보이려는 것	교사에게 외로워 보임	고민이 많아 보임	문제학생 같음	무반응	계
2	38(25.7)	2(1.4)	24(16.2)	38(25.7)	15(10.1)	31(20.9)
3	38(25.0)	3(2.0)	20(13.2)	40(26.3)	18(11.8)	33(21.7)
계	76(25.3)	5(1.7)	44(14.7)	78(26.0)	33(11.0)	64(21.3)

$$\chi^2 = 5.506 \quad df = 4 \quad p > 0.05$$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5.506으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7.815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로워 보임에 2학년이 16.2%로 3학년 13.2%보다 높게 반응했고, 3학년은 문제 학생 같아보임에 11.8%로 2학년 10.1%보다 높게 나타났다.

5) 중학생들의 상담 교사에 대한 기대 사항

<표 14>는 중학생들의 상담 교사에 대한 기대 사항이다.

성별에서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4.907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5.991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비밀보장에 여학생이 56.1%로 남학생 45.5%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확실한 답에 28%로 여학생 24.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 상담 교사 자질에 대한 인식 (I)

() : %

문항 성별	비밀보장	잘 들어 주기	확실한 답	무반응	계
남	65(45.5)	20(14.0)	40(28.0)	18(12.6)	143 (47.7)
여	88(56.1)	25(15.9)	38(24.2)	6 (3.8)	157 (52.3)
계	153(51.0)	45(15.0)	78(26.0)	24 (8.0)	300(100.0)

$$\chi^2 = 4.907 \quad df = 2 \quad p > 0.05$$

문항 학년	비밀보장	잘 들어 주기	확실한 답	무반응	계
2	76(51.4)	31(20.9)	27(18.2)	14(9.5)	148 (49.3)
3	77(50.7)	19(12.5)	46(30.3)	10(6.6)	152 (50.7)
계	153(51.0)	50(16.7)	73(24.3)	24(8.0)	300(100.0)

$$\chi^2 = 14.318 \quad df = 2 \quad p > 0.05$$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4.318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5.991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학년은 잘 들어 주어야 함에 20.9%로 3학년 12.5%보다 높게 반응했고, 3학년은 확실한 답에 30.3%로 2학년 18.2%보다 높게 나타났다.

6) 중학생들이 기대하는 상담교사 자질 사항

<표 15>는 중학생들이 기대하는 상담교사의 자질에 대한 결과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7.638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5.507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반응을 보인 친절해야 한다에 여학생이 39.7%로 남학생 34.5%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원만한 인간관계에 12.6%로 여학생 10.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5> 상담교사의 자질에 대한 인식 (Ⅱ)

		() : %				
문항 성별	참을성	전문성	공정성	친절	적극성	
남	8(5.6)	9(6.3)	12(8.4)	41(28.7)	19(13.3)	
여	17(0.8)	9(5.7)	11(7.0)	59(37.6)	25(15.9)	
계	25(8.3)	18(6.0)	23(7.7)	100(33.3)	44(28.0)	
		$\chi^2 = 7.638$		df = 8	p > 0.05	
문항 성별	인간 관계	성실	관용	명량	무반응	계
남	15(10.5)	3(2.1)	9(6.3)	3(2.1)	24(16.8)	143 (47.7)
여	15 (9.6)	5(3.2)	8(5.1)	0(0.0)	8 (5.1)	157 (52.3)
계	30(10.0)	8(2.7)	17(5.7)	3(1.0)	32(10.7)	300(100.0)
		$\chi^2 = 7.638$		df = 8	p > 0.05	
문항 학년	참을성	전문성	공정성	친절	적극성	
2	17(11.5)	10(6.8)	15(10.1)	48(32.4)	20(13.5)	
3	8 (5.3)	8(5.3)	7 (4.6)	52(34.2)	24(15.8)	
계	25 (8.3)	18(6.0)	22 (7.3)	100(33.3)	44(14.7)	
		$\chi^2 = 23.119$		df = 8	p > 0.05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23.119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5.507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밝혀졌다.

문항 학년	인간 관계	성실	관용	명량	무반응	계
2	12 (8.1)	5(3.4)	5(3.4)	1(0.7)	15(10.1)	148 (49.3)
3	18(11.8)	3(2.0)	13(8.6)	2(1.3)	17(11.2)	152 (50.7)
계	30(10.0)	8(2.7)	18(6.0)	3(1.0)	32(10.7)	300(100.0)
$\chi^2 = 23.119 \quad df = 8 \quad p > 0.05$						

2학년은 참을성에 12.8%로 3학년 5.9%보다 높게 반응했고, 3학년은 관용에 9.4%로 2학년 3.8%보다 높게 나타났다.

7) 중학생들의 상담실 역할에 대한 인지도

<표 16> 상담실 역할에 대한 인지도

() : %

문항 성별	있다	없다	모른다	무반응	계
남	3(2.1)	25(17.5)	95(66.4)	20(14.0)	143 (47.7)
여	5(3.2)	19(12.1)	123(78.3)	10 (6.4)	157 (52.3)
계	8(2.7)	44(14.7)	218(72.7)	30(10.0)	300(100.0)
$\chi^2 = 4.349 \quad df = 2 \quad p > 0.05$					

문항 학년	있다	없다	모른다	무반응	계
2	7(4.7)	22(14.9)	102(68.9)	17(11.5)	148 (49.3)
3	1(0.7)	22(14.5)	116(76.3)	13 (8.6)	152 (50.7)
계	8(2.7)	44(14.7)	218(72.7)	30(10.0)	300(100.0)
$\chi^2 = 12.522 \quad df = 2 \quad p > 0.05$					

<표 16>은 중학생들의 상담실 역할 인지도에 대한 결과이다.

성별에서 실제로 얻어진 χ^2 의 값은 4.349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

구되는 χ^2 의 값 5.991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6>의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모른다에 여학생이 78.3% 남학생이 66.4%가 반응을 보여 응답한 학생의 80.7%(218/270)가 상담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2.522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5.991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실에서 하는 일이 있다에 2학년은 4.7%, 3학년은 0.7%만이 반응해 상담실에서 하는 일을 좀더 알려야 한다고 보여진다.

8) 중학생들이 기대하는 상담실의 역할

아래 <표 17>에서 알 수 있듯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6.040으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20.517보다 낮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은 상담 활동에 21.7%로 남학생 2.8%보다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9.251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1.070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실에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일로 2학년은 상담활동에 15.5%가 반응해 3학년 10.5%보다 높게 나타났고, 3학년은 검사활동에 10.5%가 반응해 2학년 3.4%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7> 상담실 역할에 대한 기대

() : %								
문항 성별	상담카드 비치	도서 추천	검사 활동	여가선용 방법	상담 활동	문제행동 수정	무반응	계
남	4(2.8)	4(2.8)	9(6.3)	2(1.4)	4 (2.8)	7(4.9)	113(79.0)	143 (47.7)
여	2(1.3)	12(7.6)	12(7.6)	8(5.1)	34(21.7)	7(4.5)	82(52.2)	157 (52.3)
계	6(2.0)	16(5.3)	21(7.0)	10(3.3)	38(12.7)	14(4.7)	95(65.0)	300(100.0)
$\chi^2 = 16.040$ $df = 5$ $p > 0.001$								
문항 학년	상담카드 비치	도서 추천	검사 활동	여가선용 방법	상담 활동	문제행동 수정	무반응	계
2	4(2.7)	8(5.4)	5 (3.4)	7(4.7)	23(15.5)	7(4.7)	94(63.5)	148 (49.3)
3	2(1.3)	8(5.3)	16(10.5)	2(1.3)	16(10.5)	7(4.6)	101(66.4)	152 (50.7)
계	6(2.0)	16(5.3)	21 (7.0)	9(3.0)	39(13.0)	14(4.7)	195(65.0)	300(100.0)
$\chi^2 = 9.25$ $df = 5$ $p > 0.05$								

9) 중학생들이 상담하고 싶어하는 시간

<표 18>은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상담시간에 대한 결과이다.

성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1.822로 이는 $p=0.05$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0.768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학생 53.5%와 남학생 44.8%가 친구가 집에 돌아간 때에 상담하고 싶다고 반응했다.

학년에서 얻어진 χ^2 의 값은 26.744로 이는 $p=0.001$ 수준에서 요구되는 χ^2 의 값 18.465보다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 18> 상담 시간

() : %

문항 성별	친구가 집에 돌아간 때	상담교사 편할 때	수업 시작 전	점심 시간	무반응	계
남	64(44.8)	16(11.2)	13 (9.1)	20(14.0)	30(21.0)	143 (47.7)
여	84(53.5)	18(11.5)	17(10.8)	25(15.9)	13 (8.3)	157 (52.3)
계	148(49.3)	34(11.3)	30(10.0)	45(15.0)	43(14.3)	300(100.0)
$\chi^2 = 1.822$ $df = 3$ $p > 0.05$						
문항 학년	친구가 집에 돌아간 때	상담교사 편할 때	수업 시작 전	점심 시간	무반응	계
2	77(52.0)	19(12.8)	12 (8.1)	19(12.8)	21(14.2)	148 (49.3)
3	71(46.7)	15 (9.9)	18(11.8)	26(17.1)	22(14.5)	152 (50.7)
계	148(49.3)	34(11.3)	30(10.0)	45(15.0)	43(14.3)	300(100.0)
$\chi^2 = 11.933$ $df = 6$ $p > 0.05$						

상담 교사 편한 시간에 상담하겠다는 2학년이 12.8%가 반응해 3학년 9.9%보다 높게 나타났고, 3학년은 점심 시간에 상담하겠다는 17.1%가 반응해 2학년 1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로 2학년이 3학년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V.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학교 상담실 운영에 대한 중학생들의 의식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통계 처리는 문항별 반응에 대한 빈도, 백분율(%), χ^2 (chi - square)로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 결과의 요약 및 결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要約

1) 중학생들의 고민

중학생들은 학습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이고, 여학생이 성격과 외모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과 남학생이 2학년과 여학생보다 친구 문제로 더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학년과 여학생은 2학년과 남학생보다 교칙 문제로 고민한다고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고민은 성별, 학년, 형제 순위에 관계없이 형제 자매끼리의 다툼이라고 반응했다. 형제 순위에서 첫째는 다른 형제에 비해 부모 다툼에 민감한 것으로, 둘째는 형제끼리의 다툼에, 셋째는 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보호에 높은 반응을 보여 형제 순위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중학생들이 개인과 가족과 학교 생활에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성별, 학년, 종교에 관계 없이 친구, 부모,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경험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3학년이 2학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담 동기는 교사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답해 중학생들은 스스로 상담하기 보다는 교사가 불러 주어야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들은 상담을 할 때 교무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한 결과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되었다거나 상담한 자체에 만족한다가 도움이 되었다보다 많아 상담 결과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상담실 운영에 대한 인식

중학생들은 대부분 상담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응했는데, 남학생은 우연히 알게 되었다에 여학생보다 높은 반응을 보였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학교 소개 시간, 친구와 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에 더 높은 반응을 했다. 이는 학교에서 상담실 홍보에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을 말해 준다.

상담실 위치에 대해 특히 여학생들이 일반 교실과 떨어져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교사와 상담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똑같아 보인다는 고민이 많아 보인다는 비슷한 반응이 나타났고,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문제학생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들은 상담 교사가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하고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지켜주며, 문제에 확실한 답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에서 하는 일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72.7%나 되, 학교는 상담실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을 두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상담 활동, 검사 활동, 도서 추천 순으로 반응해서 상담실에서는 상담 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시간으로는 성별, 학년과 관계없이 친구들이 집에 돌아간 시간을 선택했고, 2학년은 상담 교사 편할 때에, 3학년은 수업 시작 전이나 점심 시간에 다른 학년보다 더 높게 반응해 2학년이 3학년보다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결 론

1) 중학생들의 고민에 대한 순서는 개인과 가족과 학교 생활에서 학습, 형제 자매 다툼, 교사, 성격, 부모 과잉 보호와 간섭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학습 문제인 것을 알 수 있다.

2) 중학생들은 자신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친구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 교사 순이었다. 중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학습 문제임에도 교사와 함께 고민을 나누겠다고 한 학생이 극히 적은 것을 보아 상담실에서는 교사의 학습과 진로지도를 도움 방안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담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 교사가 불러서 했다는 답한 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많은 고민을 갖고 있음에도 교사가 불러 주어야만 상담을 하는 소극성을 나타냈다. 상담실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상담실을 찾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것이다.

4) 상담을 한 곳은 교무실이 가장 많았고, 상담실에서 상담을 한 학생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해, 상담실은 개인적인 상담실로도 교사들의 상담 장소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을 좀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5) 중학생들은 상담실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으나 우연히 알게 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담실 위치가 적절하지 않거나 상담실 홍보가 모자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6) 상담 교사와 상담하는 친구를 자신과 똑같이 본다는 응답이 고민이 많아 보인다는 비슷하게 나타나 상담 교사와 상담하는 학생에 대해 그리 부정적인 시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7) 중학생들은 상담 교사가 친절하고 적극적이며 원만한 인간 관계를 가지고 비밀을 보장하면서 학생의 문제에 확실한 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상담실에 배치할 교사의 자질에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8) 중학생들 대부분이 상담실에서 하는 일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실은 좀 더 확실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상담실에서 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9) 상담실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일을 물었으나 많은 학생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것으로 학생들이 상담실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 공석영, 「생활지도 상담론」, 서울 : 학문사, 1991.
- 교육법전, 「교사 자격 기준」, 서울 : 교육부, 1992.
- 교육위원회, 「상담을 통한 학급담임 중심 생활지도의 실제」, 1986.
- 김왕용, 「중학교 생활지도 조직과 지도체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85.
- 김충기, 「생활지도와 상담」, 서울 : 교육과학사, 1993.
- 김충기 · 이재창, 「상담과 상담치료」, 서울 : 교육과학사, 1986.
- 김형태, 「학교 카운슬러의 자격과 역할」,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0.
- 박성수, 「현대 교육과 카운슬링」, 1990.
- 박재황, 「한국상담의 전문화와 대중화를 위한 상담정책」, 서울 : 교육 평론, 1993.
- 범죄 분석, 대검찰청, 1990
- 이영옥, 「집단 상담이 중학생들의 성격특성이 자아 개념 및 학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 충북대, 1983
-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 박영사, 1982.
- 이형득, 「상담이론」, 서울 : 교육과학사, 1992.
- 장혁표, 「학교상담 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 1992.
- 정원식 · 박성수,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 정원식 · 이영덕, 「생활지도의 원리와 실제」, 서울 : 교육 과학사, 1991.
- 체육 청소년부, 「청소년 백서」, 서울 : 동광 문화사, 1991.
- 황용연 · 윤희준, 「생활지도」, 서울 : 교육출판사, 1981.

- 허작, 「고교생의 교사 역할 기대」, 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gelo V., Boy and Gerald J. Pine, 「The Counselor in the School: A Re-
conceptualiza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Co., 1968.
- Arbuckle D. S., A Semantic Excursion,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1962.
- Friedenberg E. Z., 「The Vanishing Adolescent」, New York : Dell
Publishing Co.
- Roeber E., Smith G., Erickson, C.,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Guidance Services」, New York : McGraw -Hill Book, Co.,
1975.
- Reddick W., Wattenberg W., 「Hygiene Teaching」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1951), pp. 237 - 242.
- Smith G. E. , 「Counseling in the Secondary School」, New York :The
Macmillan - Co., 1955.
- Wrenn C. G., 「Status and Role of the School Counselor」, 1957.

ABSTRACT

A Study on the Operation of A Counselling Department Perceived by Junior High School Students

Lee Youn Ork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Han 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different views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on (1) what kind of troubles they have in their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life (2) what they think of the role of a counseling department according to their genders and grades(if necessary, religions and brotherly order)

The abstracts of the study are these :

1) In their individual, family and school lif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orry about study, quarrels among brothers and sisters, teachers, personality, and parents' overprotection and interference, in a hierarchial order of concern.

With the above, we learn study is the most serious problem to the students.

2) Students want to share their agonies with their friends most. The next ranks are occupied by their parents and teachers. Though study is the most serious problem to them, only few students want to resort to teachers for their problems.

So a counseling department should find ways for teachers to help the students with study and course guidance.

3) On the counseling motives, most students answered counselings were done when teachers invited them for a counseling. It seems that the students counsel only when teachers take the initiative, although they are faced with lots of agonies. A counseling department should provide effective programs to draw students' voluntary visits.

4) Most students counseled in a teachers' room while few students counseled in a counseling room. So a counseling department seems to be used as neither a place for an individual counseling nor a place for a counseling by teachers.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to make the best of a counseling

department.

5) Most students know the existence of a counseling department but it was mostly by chance. The reasons seem to be unsuitable placing or insufficient informing of a counseling department.

6) The ration of students who identify themselves with the counselees is similar to the ration that they think the counselees seem to have much trouble.

This shows the students don't have so negative views toward counselees.

7) The students think a counseling teacher should (1) be kind, positive and sociable (2) ensure secrecy and (3) offer definite answers to their problems.

It seems that the school authorities need to concentrate more on the qualification of teachers they would station in a counseling department.

8) Most students don't know what's going on in a counseling department. A counseling department should arrange more specific programs and actively inform students of those programs so that

students may have interest in the activity of a counseling department.

9) A lot of students didn't answer to the question about what a counseling department should lay emphasis on.

This fact suggests no interest of the students in a counseling department.

‘학교 상담실 운영에 대한 중학생의 의식 구조 연구’를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

본 설문 조사는 중학생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와 상담에 대한 견해를 알아보고, 앞으로 신나는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길을 찾아 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솔직히 답해 주십시오.

이 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에만 쓰여질 것입니다.

1995. 2.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 연 옥 드림.

I. 인적사항

(해당란에 ○ 표 해 주십시오.)

1.성별: --- 남 --- 여

2.학년: --- 1 --- 2 --- 3

3.종교: -- 기독교 -- 천주교 -- 불교 -- 기타

4.출생: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5.부모: -- 친부모 -- 아버지만 -- 어머니만 -- 기타

6.부모직업 : 있다 없다

부 () ()

모 () ()

7.부모학력 : 대학원 대졸 고졸 중졸이하

부 () () () ()

모 () () () ()

II. 설문내용

(해당란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o표 해 주십시오.)

1. 자신에 대해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 | | |
|------------|---------|
| ___① 학습 | ___② 성격 |
| ___③ 나쁜 버릇 | ___④ 친구 |
| ___⑤ 외모 | |

2. 가족에 대해 가장 고민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 ___① 부모가 과잉 보호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함 | |
| ___② 부모가 자주 다툼 | ___③ 부모가 이혼 ,돌아가심 |
| ___④ 가난 | ___⑤ 부모가 지나치게 무관심함 |
| ___⑥ 형제,자매끼리 다툼 | |

3.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불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 | |
|-------------|---------|
| ___① 교사의 태도 | ___② 친구 |
| ___③ 학습 방법 | ___④ 교칙 |

4. 위의 고민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싶습니까 ?

- | | |
|----------|---------|
| ___① 교사 | ___② 친구 |
| ___③ 부모 | ___④ 형제 |
| ___⑤ 종교가 | |

5. 학교에서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 | |
|----------|----------|
| ___① 있다. | ___② 없다. |
|----------|----------|

6. 상담을 해 보았다면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

- | | |
|------------------|----------------|
| ___① 스스로 상담실을 찾음 | ___② 상담교사가 불러서 |
| ___③ 일반교사가 불러서 | ___④ 친구가 권해서 |
| ___⑤ 자원봉사자의 집단상담 | |

*** ①이나 ②에 답한 학생은 11번 문항으로 갑니다.

7. 상담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

____① 상담실 ____② 교무실

___③ 미술실,음악실 등 별실 ___④ 일반 교실

8. 상담을 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

___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됨 ___② 도움이 안 되었음

___③ 상담을 했다는 것만으로 좋았음

9. 학교에 상담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____ ① 안다. ____ ② 모른다.

10. 상담실을 이용해 본 일이 있습니까 ?

___ ① 그렇다. ___ ② 아니다.

11. 상담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___① 학년초 학교소개 시간 ___② 친구를 통해서

___③ 교사를 통해서 ___④ 지나가다가 우연히

12. 상담실 위치는 이용하기에 적당합니까 ?

___ ① 그렇다. ___ ② 그렇지 않다.

13.적당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① 눈에 잘 안 뜨이는 별관에 있음

___② 매점과 가까움 ___③ 일반 교실과 가까움

④ 교무실과 가까움

14. 상담실의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

___① 눈에 잘 안 뜨이는 별관에 있음

___② 매점과 가까움 ___③ 일반 교실과 붙어있음

④ 교무실과 가까움

15. 상담교사와 상담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___ ② 없다.

16.상담교사와 상담한 결과에 만족합니까 ?

- ___① 매우 만족 ___② 만족
___③ 그저 그럼 ___④ 불만 ___⑤ 매우 불만

17.상담결과에 불만족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___① 상담실 바깥이 시끄러움
___② 상담교사가 무성의함
___③ 다른 교사가 이야기 중간에 끼어듬
___④ 상담교사가 말을 많이 함

18.상담결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은 친구가 있습니까 ?

- ___① 있다. ___② 없다.

19.있다면 몇 명입니까 ? ()명

20.상담교사와 상담하는 친구를 어떻게 보십니까 ?

- ___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___② 교사에게 잘 보이려는 것임
___③ 외롭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보임
___④ 고민이 많아 보임
___⑤ 문제학생처럼 보임

21.상담교사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___① 상담 내용의 비밀을 잘 지켜주어야 함
___② 상담 내용을 잘 들어주어야 함
___③ 상담한 것에 대해 확실한 답을 주어야 함

22.여러분의 일상행동에 대해 상담교사는 일반교사와 차이가 있습니까 ?

- ___① 더 관심이 있음 ___② 일반 교사와 같음

23.상담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

- ___① 참을성 ___② 전문성 ___③ 공정성
___④ 친절함 ___⑤ 적극성 ___⑥ 원만한 인간관계
___⑦ 성실성 ___⑧ 관용성 ___⑨ 명량성

24.상담실에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 ___① 있다. ___② 없다. ___③ 모른다.

25.있다면 알고 있는 것에 ◦ 표해 주십시오.

- ___① 상담신청카드를 비치하고 있음
___② 상담에 관련된 도서를 추천하거나 빌려줌
___③ 인성검사,적성검사 등 조사활동
___④ 여가선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음
___⑤ 개인상담,집단상담,부모상담 등 상담활동
___⑥ 문제행동 수정

26.25번 문항 중, 학교상담실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

27.상담실에서의 상담은 언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

- ___① 친구들이 집에 돌아간 시간
___② 상담교사가 시간을 낼 수 있을 때
___③ 아침 - 수업 시작 전에
___④ 점심시간

28.94년 한 해 동안 상담실에서 자신이 상담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

- ___① 한 번도 없다. ___② 1 - 3 번 ___③ 4 - 6 번
___④ 7 - 9 번 ___⑤ 10 번 이상

29.학교상담실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